

일주문



연꽃 사진전 개최
대구법선사 주지 부용 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처법상장'을 주제로 연꽃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02)2011-1700



청주불교방송 '불교포커스' 진행
육천사삼엄연합회장 혜철 스님(육천 대성사 주지)은 4월 29일부터 청주불교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불교포커스' 진행자로 활동한다.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특별상 수상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회장이 교보생명 환경문화상 특별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공불련 성지순례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은 4월 19-20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에서 임원단 회 및 성지순례법회를 병행했다.

군산 삼보사 후불탱화 점안 법회 봉행



군산 오성산삼보사(주지 법승)는 4월 12일 대웅전 삼존불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전주 보문사 혜월 스님을 증명법사로 회주 지환 스님,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백운사 지항 스님, 내원암 자인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공군 38전대 호국 군성사 수계법회 봉행



군산불교사모연합회(회장 재근, 관음사 주지)와 공군 38전대(전대장 이성룡 대령)는 4월 13일 부대내 호국 군성사에서 무사고 안전기원 및 불자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992년 개원한 호국 군성사는 미군 기지 내 위치한 특성상 법회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이날 수계법회로 개원 후 처음 봉행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전남 파라미타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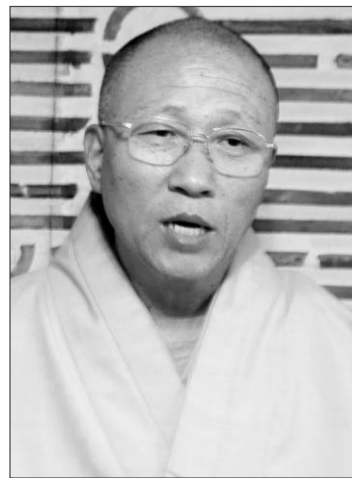
파라미타청사연합회(회장 도후)의 14번째 지부인 전남파라미타(회장 종삼, 화엄사 주지) 발대식이 4월 12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렸다. 전남파라미타는 1월 30일 화엄사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시의 운율 墨의 향기로 읊었다

'한글 서예전' 여는 효림 스님

시인 효림 스님(성남 봉곡사 주지)이 오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인사동 하나로 갤러리에서 한글로 담은 우리 시 서예전을 연다. <법구경>의 구절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 시를 중심으로 평소 함께 해온 시우(詩友, 시를 함께 쓰는 도반들)의 애송시를 묵향에 담아 한글로 썼다. "저는 그동안 글을 제대로 쓰는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서툴러서 드러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자에 와서 설악산 백담사와 보광사 수구암에 기거하면서 한가로움을 즐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4년여 간 나름대로 열심히 글을 써왔는데 좋은 인연으로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총 100여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지난 겨울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며 사찰에 들어와 시를 그려봤습니다. 한문 글씨만 써오다가 어느 날부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수한 우리의 글인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차등 없이 모두에게 쉽게 다가가고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언어입니다. 우리 시를 한글로 씌으로써 시인의 생각을 참담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의 운율을 묵향으로 느끼며 하나의 회마다 담긴 먹의 조율을 읽어보라. 그러다보면 절로 환희심이 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부



차남의 마음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02)720-4646 가연속 기자 omflower@daum.net

"불교언론인 위상 강화에 최선 다할 것"

불기협 15대 회장에 안직수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 제 15대 회장에 불교신문 안직수 차장이 선출됐다. 불기협은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에 안직수 차장을, 부회장에 불교TV 조용수 PD를 각각 선출했다.

안직수 회장은 "지난 2년 사이 불교언론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불기협 회장으로서 불교언론인 위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회장은 ▲경제계 관련 초청강연 ▲불교계 큰 일꾼 체육대회 개최를 주요 사업으로 제안했다. 1999년 불교신문사에 입사한 안직수 회장은 수원불교대학장과 단국대 불교학석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불교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한국 선풍 널리 알리는 계기 될 터"

독일에 포교원 여는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

"독일 사람들이 한국 선(禪)에 대해 관심이 많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독일포교당에서는 현지인들에게 최대한 쉽게 한국 불교를 알릴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시애틀, LA 등 3개 지역에서 해외포교를 전개해온 동산불교대학 김재일 이사장이 해외에 또 다른 동산포교당을 개원했다. 이번에는 독일, 즉 유럽이다. 이튿날 '독일동산유럽포교원(이하 독일포교당)'이다.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에 전법의 범위를 넓리겠다는 뜻이다. 독일포교원 개원식이 있었던 4월 19일 김 이사장은 직접 개원식에 참석했다. 개원식에서는 불상 점안식과 김 이사장의 특별법회 등이 진행됐다. 이번 독일포교원 개원에는 사실 동산불교대학 동문인 독일 현지 한의사 나진오(65)씨

의 원력이 컸다. 나씨 개인 소유 건물에 독일 포교원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이 약 8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동산불교대학에 입학해 법사 과정까지 모두 졸업했습니다. 입학식과 졸업식만 직접 참석하고 수업은 모두 인터넷으로 수강했어요. 본인이 동산에서 느낀 게 많으며 그것을 현지에서 풀어내고 싶다는 뜻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씨가 운영하는 한의원 이름도 '동산 한의원'이다. 김 회장은 "나씨는 1년 전부터 독일포교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동산불교대학에 모시고 있던 불상을 독일로 이송하는 등 포교원을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독일인들에게 '메디테이션(명상)'과 명상음악을 소개하는 열성도 보여 왔다. "독일포교원 개원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유럽 불자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도 될 것이라 보인다. 독일포교원을 통해 동산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독일포교원에서는 앞으로 명상과 염불선 수행 등을 중심으로 한 현지 맞춤 포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충남지방청 불교회 임연빈 회장



"회원들이 신행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에 취임한 임연빈(51·경리계장) 회장은 회원들의 신행활동과 화합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기법회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고 이웃종교 모인교도 교류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경승도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 충남청 불교회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시절 불교와 인연을 맺은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당진경찰서에서 불교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 포교에 힘써왔다. 혜철 충청지사장

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독일인들에게 '메디테이션(명상)'과 명상음악을 소개하는 열성도 보여 왔다. "독일포교원 개원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유럽 불자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도 될 것이라 보인다. 독일포교원을 통해 동산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독일포교원에서는 앞으로 명상과 염불선 수행 등을 중심으로 한 현지 맞춤 포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 허은 스님 초청 법회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회장 정일태)는 4월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허은 스님(동화사 주지)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허은 스님은 "불자언론인은 목탁과도 같이 지역 포교와 불교 언론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언론인 스스로 수행하고 배움과 봉사를 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순법천대구지사장

진흥원 조계종에 봉축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4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전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는 "올 부처님오신날을 종교교를 떠나 나눔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충북 조계종비구니회 공주 금강원 방문



충북 조계종비구니회(회장 묘연)는 4월 10일 노인요양시설인 공주 금강원(관장 정관애)에 자원금과 간식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묘연 스님은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순선 기자

무량종 창종 9주년 및 본산 창건 기념법회



대한불교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4월 13일 총본산인 하동 칠보정사에서 창종 9주년 및 본산 창건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대행 총무원장인 혜안스님과 종단 임원 및 각 종단 지도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동대사 개원 및 관음존상 봉안 법요식



대구 동대사(주지 도산)는 4월 15일 관음전에서 사찰 개원식과 관음존상 봉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천태종은 대구 만촌동 우암사를 인수해 동대사로 재개원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삼스님을 비롯한 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순법천대구지사장

Advertisement for Twin Media audio equipment. Includes text: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디지털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각종 마이크 시스템(에코기능)',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대표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Fax 02)2275-1242 [계좌: 신한 110-229-849384 예금주: 최유창]',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Advertisement for Hyeonwoo Gihyeok. Includes text: '이제 연등에 변장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제작이 간편한 등', '아외장염용', '운반 및 보관 용이',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경제적인 가격', '현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043)877-8236', 'www.hyeonwoogihyeok.com'.